

## 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회

○ 일시: 1992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개의

○ 발언자:

-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국무대신(정치가,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중의원 문교위원장, 문부대신, 노동대신, 중의원 운영위원장, 법무대신,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방분권개혁), 민주당 부대표,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 중의원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장)

○ URL: <https://kokkai.ndl.go.jp/txt/112305268X00219920312/148>

○ 해제(개요 및 특징)

하토야마 대신이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출판사가 한 곳 있다는 기존 언급을 되풀이함.

○ 주요 내용 번역

- ▷ **하토야마 국무대신** “(전략) 이후에 저작·편집된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여러 사건을, 예컨대 조선반도와 관계에서 말하자면 창씨개명, 강제연행, 강제노동 혹은 강제적인 신사참배 같은 것도 이전보다 많이 쓰여 있고,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는 이미 **중군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출판사가 한 곳 있습니다. 1982년에 그런 일이 있는 이래 편집된 교과서는 이전보다는 꽤 잘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과 같은 견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과서는 좋아졌다고 평가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